

##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재문\*·조영구\*\*·이은모\*\*  
\*영진전문대학, \*\*대구공업대학교

###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Adolescents on Their Agg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ae-Moon Lee\*·Yeong-Gu Jo\*\*·Eun-Mo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eungjin colleg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Technical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ir agg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316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city. To analyze the sample survey dat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SPSS/PC 18.0 program.

**Results:** First,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 differences, academic achievement and economic status yield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Gender, economic status, and educational background produc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gressiveness, while gender, academic achievement, and economic statu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cond, an examination of the correlation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gg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und that the higher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lower the aggressive, and the high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rd, general characte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explain 22% of aggressiveness. Gender, age, economic status, and emotional intelligen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aggressiveness. Fourth, the general characte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explain 45,5%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economic status and emotional intelligen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is of great importance, in that it provides the basis for future studies, which can be used to help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

접수일 : 2014년 7월 18일, 수정일 : 2014년 8월 21일, 채택일 : 2014년 8월 22일

교신저자 : 조영구(704-7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

Tel: 053-560-3823 FAX: 053-560-3829 E-mail: flypiglee@nate.com

parent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mote the students' quality school life.

**Key words:**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Aggressive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서론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일생동안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많은 사람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해간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의 미성숙 상태에서 성인의 성숙의 단계로 옮겨가는 시기로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정체감 위기로 인한 좌절과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부로 표출되기도 한다(김지혜, 김순옥, 2011). 이때 청소년은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래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신체,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게 되고, 또래로부터 이해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된다. 긍정적인 또래 대인관계는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지만, 부정적인 또래 대인관계는 거부, 무시를 통해 불안정한 정서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학교부적응 및 비행, 공격적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들어 학교 안에서의 폭력·왕따 등은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또래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중·고등학생은 12%로, 8명 중 1명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로 인해 청소년 내담자수는 2012년 4,606,741명으로 그 중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상담내용 중 대인관계는 19.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21.8% 증가하였다.

많은 심리학자 및 교육학자들은 개인의 정서지능

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인지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정서 혹은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서지능은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대인관계나 비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홍찬영, 2002). 일반적으로 낮은 정서지능을 지닌 개인은 난폭하고 좌절감에 빠지기 쉬우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유자경, 2005). 또한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냉정하거나 멍청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결국에는 사람들로 부터 배척당하기 쉽다(Salovey et al., 1990).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키면서 관계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서지능이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을 통해 길러질 수 있고, 정서적 능력을 기르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Goleman, 1995). 그렇지만 청소년이 갖는 정서적 문제는 청소년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부적응 요인으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정복희, 2003)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에 축적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이러한 분노를 또래 친구들에게 표출함으로써 학교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노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공격적 행동으로 전환되어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갖는 공격적 특성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성인기에도 공격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Eron, 1987 McCord, 1988 Olweus, 1991 이춘아, 1998), 공격적인 행동에서도 자제력이 약하고 폭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향도 높다(Olweus, 1979 이춘아, 1998).

특히, 정서지능에서 쉽게 좌절되고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집단에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Rubin & Mills, 1991 강지훈, 2004),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상대적으로 덜 나타내었다(Arsenio, Coopeman & Lover, 2000 박인경, 2006). Cole, Michel & Teti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김수형, 2004). 이와 같은 청소년의 특성과 문제에 대하여 정서지능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정적이며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감정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지닌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비행과 탈선을 하기 쉽다고 한다(문용린, 1996).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기술이 뛰어났다(곽윤정, 2004; 김상희, 2009). 반면에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조절을 못하여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사회적 기술의 결여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의 문제 행동을 보였다(문용린, 1997).

이 외에도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성의 차이를 보이는데 장자녀보다 차자녀가 타인과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대화에 주도적인 경향이 있다(박혜원, 1997). 즉 첫째보다는 둘째가 원만한 대인관계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은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alovey 등(1990)이 정서지능의 개념을 처음 발표한 이래 국내에서도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를 활용한 곽윤정(1997), 신혜숙(2001), 박은아(2003) 등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타당화가 일부 검증되었지만,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정서지능과 관련된 최근의 활발한 연구 성과에 비하여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승희(2001)와 홍찬영(2002)은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부적응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정서지능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중요하며 정서지능이 공격적 행동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공격성, 정서지능과 대인관계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Goleman(1995)은 정서지능과 관련된 두뇌영역은 유년기 초기에 완성되는 지각관련 영역과는 다르게 사춘기 후반인 16-18세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서지능과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로써 정서지능이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청소년의 문제들에 관련성이 깊은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보건교육 담당자 및 각 학급 교사가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진행과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D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D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학교장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각반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또한 자료수집과정에서 학생이 중단하기를 희망할 경우 중단할 수 있음도 고지하고 익명보장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총 2개교에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 392부를 회수하였다. 그 가운데 무응답, 불충분한 설문지 76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316부를 최종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청소년용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문용린(1999)이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에 입각하여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정서인식 및 표현 8문항, 감정이입 8문항, 사고촉진 8문항, 정서활용 8문항, 정서조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정서조절 8문항 중 2문항(20,35)은 내적 신뢰도 확보에 문제가 있어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86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2) 공격성

공격성은 Buss &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정동화(1996)가 번안하여 전체 29문항에서 분석을 통해 일부 문항을 삭제하여 21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한 이향숙(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신체적 공격성 6문항, 적의성 5문항, 언어적 공격성과 타인에 대한 의심 6문항, 분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909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 & Guerney(1971)가 개발한 대인관계변화 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이형득과 문선모(1982)가 번안한 것을 적용한 진성애(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94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는 성별, 학년, 출생순위, 학업성적, 경제수준을 조사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들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공격성, 대인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서지능과 공격성 및 대인관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적률 상관계수(Pearson's  $r$ )를 산출하였다.

셋째, 정서지능과 일반적 특성이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전

체 연구대상자 316명 중 성별은 여학생이 60.8%로 남학생 39.2% 보다 많았고, 학년은 중학교 3학년 39.9%, 중학교 2학년 36.7%, 중학교 1학년 23.4% 순이었다. 가족 서열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출생순위는 첫째가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둘째로 33.5% 셋째는 19.0%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보통이다 39.9%, 못하는 편이다 37.9% 인 반면 잘하는 편이다 는 22.2%로 가장 적었다. 경제수준도 마찬가지로 보통이다 64.5%, 못하는 편이다 28.5%, 잘사는 편이다 는 7.0%로 가장 적었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은 <표 2>에서 성별, 학년, 출생순위를 제외하고, 학업성적( $F=9.43$ ,  $p<0.001$ ), 경제수준( $F=55.71$ ,  $p<0.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6)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 별	남학생	124	39.2
	여학생	192	60.8
학 년	중1	74	23.4
	중2	116	36.7
	중3	126	39.9
출생순위	첫째	150	47.5
	둘째	106	33.5
	셋째	60	19.0
학업성적	잘하는 편이다	70	22.2
	보통이다	126	39.9
	못하는 편이다	120	37.9
경제수준	잘사는 편이다	22	7.0
	보통이다	204	64.5
	못사는 편이다	90	28.5

&lt;표 2&g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일반적특성	구 분	M±SD	t / F	sig
성 별	남학생	3.12±0.38	-1.30	0.197
	여학생	3.19±0.33		
학 년	중1	3.15±0.37	1.31	0.274
	중2	3.22±0.39		
	중3	3.12±0.28		
출생순위	첫째	3.15±0.37	0.94	0.394
	둘째	3.14±0.35		
	셋째	3.24±0.25		
학업성적	잘하는 편이다	3.35±0.40	9.43	0.000***
	보통이다	3.17±0.29		
	못하는 편이다	3.05±0.33		
경제수준	잘사는 편이다	3.79±0.21	55.71	0.000***
	보통이다	3.14±0.31		
	못사는 편이다	3.07±0.30		

\*\*\* p&lt;0.001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은 <표 3>에서 출생순위, 학업성적을 제외하고, 성별( $t=4.18$ ,  $p<0.001$ ), 학년( $F=4.75$ ,  $p=0.010$ ), 경제수준( $F=9.14$ ,  $p<0.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공격성이 높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표 4>에서 학년, 출생순위를 제외하고, 성별( $t=-2.22$ ,  $p<0.028$ ), 학업성적( $F=9.72$ ,  $p<0.001$ ), 경제수준( $F=19.75$ ,  $p<0.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정서지능, 공격성, 대인관계의 상관관계

정서지능, 공격성,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는 <표 5>에서 공격성은 정서지능과 정적관계를 보이고 대인관계는 정서지능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즉 정서지능은 공격성( $r=-0.250$ ), 대인관계( $r=0.615$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격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t;표 3&gt;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일반적특성	구 분	M±SD	t / F	sig
성 별	남학생	2.83±0.56	4.18	0.000***
	여학생	2.47±0.52		
학 년	중1	2.47±0.57	4.75	0.010*
	중2	2.52±0.55		
	중3	2.78±0.55		
출생순위	첫째	2.56±0.56	0.49	0.615
	둘째	2.64±0.52		
	셋째	2.67±0.67		
학업성적	잘하는 편이다	2.44±0.61	2.58	0.790
	보통이다	2.62±0.55		
	못하는 편이다	2.71±0.54		
경제수준	잘사는 편이다	2.01±0.28	9.14	0.000***
	보통이다	2.60±0.58		
	못사는 편이다	2.79±0.48		

\* p&lt;0.05, \*\*\* p&lt;0.001

&lt;표 4&gt;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일반적특성	구 분	M±SD	t / F	sig
성 별	남학생	3.35±0.56	-2.22	0.028*
	여학생	3.54±0.47		
학 년	중1	3.52±0.57	1.39	0.252
	중2	3.52±0.51		
	중3	3.38±0.48		
출생순위	첫째	3.51±0.53	0.69	0.502
	둘째	3.41±0.51		
	셋째	3.44±0.47		
학업성적	잘하는 편이다	3.70±0.54	9.72	0.000***
	보통이다	3.52±0.52		
	못하는 편이다	3.26±0.41		
경제수준	잘사는 편이다	4.11±0.33	19.75	0.000***
	보통이다	3.52±0.49		
	못사는 편이다	3.19±0.43		

\* p&lt;0.05, \*\*\* p&lt;0.001

<표 5> 정서지능, 공격성, 대인관계의 상관관계

구 분	정서지능	공 격 성	대인관계
정서지능	1.000	-.245**	.615**
공 격 성		1.000	-.250**
대인관계			1.000

\*\* p<0.01

**6. 대상자의 특성과 정서지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특성과 정서지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중공선성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0 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상인 변인이 없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수 중 성별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과 정서지능이 공격성을 22.0%정도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F값이 7.096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그리고 공격성에 성별( =0.284), 학년( =0.155), 경제수준( =0.151), 정서지능( =-0.136)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상자의 특성과 정서지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변 수	B	SE	$\beta$	t	p
상수	2.189	.591			<.001
성별	.328	.085	.284	3.857	<.001
학년	.112	.053	.155	2.105	.037
출생순위	.503	.056	.071	.942	.348
학업성적	.503	.060	.071	.876	.382
경제수준	.154	.085	.151	1.801	.044
정서지능	-.222	.132	-.136	-1.683	.047

Adj. R<sup>2</sup>=.220; F=7.096

**7. 대상자의 특성과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특성과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다중공선성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0 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상인 변인이 없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수 중 성별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과 정서지능이 대인관계를 45.5%정도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F값이 20.986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경제수준( =-0.189), 정서지능( =-0.51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7&gt; 대상자의 특성과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 수	B	SE	$\beta$	t	p
상수	2.003	.447			<.001
성별	-.118	.064	-.113	-1.839	.068
학년	-.026	.040	-.040	-.651	.516
출생순위	-.049	.042	-.073	-1.151	.252
학업성적	-.057	.046	-.084	-1.244	.216
경제수준	-.174	.065	-.189	-2.701	.008
정서지능	.755	.100	.511	7.572	<.001

Adj.  $R^2$ =.455;  $F$ =20.986

## · 논의

정서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정서지능의 개발은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 정서적 특성이 형성되기 전, 변화 가능성이 많은 단계인 아동기와 늦어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김창대, 1985).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정서지능이 변인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공격성, 대인관계 차이 비교에서 정서지능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공격성이 높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들(Yoo & Kim, 2003; Kim & Lee, 2010)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지능이 높은 평균을 보였다는 신혜숙(200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기에 추후 반복연구를 필요로 한

다. 다만,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은 과거와 달리 남학생들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이 중, 하 집단에 비해서 정서지능이 높았다. 가정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에 비해서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원석(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김현준(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공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명희, 2008; 김은임, 2011; 신미숙, 1997; 이경희, 1998; Khatri, 1996; Lagerspetz & Bjorkqvist, 1994; Macoby & Jacklin, 1980)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공격성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공격성이 높았고, 가정생활수준이 하인 집단이 중인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소원석(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연령에 따른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유안진(200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욕구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에 노출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좌절감으로 공격성이 증가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여 학생 모두 공격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이 생겨나며 또래관계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이나 언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그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격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인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 능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강효숙, 2003; 김미란, 2002; 박의숙, 2003; 정홍란, 2012)와 일치하며,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김지혜(20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성적이 낮은 청소년보다 교우관계가 더 좋다는 권용수(2005), 정홍란(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교우관계가 좋다는 선행연구(박의숙, 2003; 이은희, 2005; 정홍란, 2012)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보다 더 배려하고 감정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고 잘 어울리게 하는 특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학생은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대인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서지능, 공격성, 대인관계의 상관관계에서 대인관계는 정서지능, 공격성과 상관관계를 보여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낮추고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일반적 특성, 정서지능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에게서 공격적 행동이 더 높다는 김애정(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

생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학년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중학교 1,2,3학년 간 차이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고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소원석(2013)의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공격성이 높아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범주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에 비해서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소원석(2013)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정서지능의 경우 정서지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이 낮을수록 심각한 공격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일반적 특성,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 특성 중 경제수준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교우관계가 좋게 나타난 정홍란(201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높은 경우 자녀가 안정감을 갖게 되어 대인관계능력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지능의 경우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이수미(200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건강한 대인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청소년수련원 등 유관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지능을 높이고 공격성을 낮추고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별, 학년별, 그룹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급 학교에서는 보건교육 담당교사

및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는 정서지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지역과 연령을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타당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시 2개 중학교 남·여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중학생들의 정서지능이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정서지능은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격성은 성별, 경제수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는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서지능, 공격성, 대인관계간의 관계는 공격성은 정서지능과 정적관계를 보이고 대인관계는 정서지능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정서지능이 공격성을 22.0% 설명하였고, 성별, 학년, 경제수준, 정서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인관계는 4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정서지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별 대상자 수를 충분히 표집하여 차이를 비교해보는 연구와 연령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종단연구를 수행해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정서지능 이외의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하고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대인관계 방식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적으로 특정 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상을 D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두 곳의 1, 2, 3학년 학생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

## 참고문헌

1. 강지훈.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2. 광윤정.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3. 광윤정.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4. 김명희.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공격성 및 피공격성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충북: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8.
5. 김지현.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아동학회지 2009;30(6): 489-504.
6. 김지혜. 청소년의 정서지능,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7. 김지혜, 김순옥.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2011;14(1): 71-87.
8. 김상희. 정서지능 이론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충남: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2009.
9. 김숙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4.
10. 김은임.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교 대학원, 2001.
11. 김애정. 학교폭력의 사회복지적 대처방안에 관

- 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 한신대학교 대학원, 2004.
12. 김창대.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13. 김현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 및 대인관계성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14. 김현준.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지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인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7.
  15. 문용린.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 감성지능. 피터셀로비 교수 초청강연회 자료집, 1996년 11월.
  16. 문용린. EQ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글이랑, 1997.
  17. 문용린. EQ,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서지능의 이해와 적용. 기초강연: 정서지능연구의 현재와 미래. 1998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8:1-16.
  18. 박은아. 특성 정서지능 및 능력 정서지능 검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19. 박인경. 명상활동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20. 박의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또래관계 질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3.
  21. 박혜원, 김은지. 기질이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997;4(1): 32-50.
  22. 소원석. 정서지능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23. 신미숙.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성차 및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24. 신혜숙. 정서지능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25.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002;23(3):79-90.
  26. 유자경. 정서지능,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남: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2.
  27. 이경희.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28. 이수미.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09;16(3): 131-147.
  29. 이창숙. 부모 양육태도와 애착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30. 이춘아, 이숙.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8;16(3):67-78.
  31. 정동화.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박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32. 정민, 장안나.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09; 10(2):669-681.
  33. 정복희.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자기상(Self-Image)과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34. 정홍란.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교우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전남: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2.
  35. 하승희.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경북: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1.
  36. 홍찬영. 유아의 정서지능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2.
  37. 통계청. www.nso.go.kr
  38.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CA: Bantam Books, 1995.
39. Macoby, E. E., & Jacklin, C. N. Sex difference in aggression :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1980;51:964-980.
40. Salovey, P. & Mayer, J. 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1990;9:185-211.
41. Salovey, P. & Mayer, J. D. Emotional development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CA: Basic Books, Harp Collins Pub, 1997.